

포르투갈어 경구개 비강자음 /ɲ/의 양음절성

Ambisyllabicity of Portuguese Palatal Nasal /ɲ/

현 기 흥*
(Hyeon, Ki-Hong)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Optimality-Theoretic account of a rare but not much studied phonological phenomenon, Ambisyllabicity of Portuguese Palatal Nasal /ɲ/. The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I. I observe that /ɲ/ is characterized not only by obligatory nasalization of the preceding vowel but also by exceptional syllabification and foot formation. II. I analyze that the exceptional syllabification and foot formation is exclusive to /ɲ/. III. I clarify that /ɲ/ does not happen as coda but has in common the exceptional syllabification and foot formation as well as the obligatory nasalization with /m, n/ in coda position. IV. I conclude that /ɲ/, therefore, has a phonological ambisyllabicity, V. and that the preceding segment of phonologically ambisyllabic /ɲ/ is /n/ in both synchronic and diachronic terms. VI. Finally I provide a Optimality-Theoretic account of ambisyllabic portuguese palatal nasal /ɲ/.

Key Words: Palatal Nasal Consonant, Portuguese, Optimality Theory, Obligatoriness, Nasalization, Exceptionality, Syllabification, Foot Formation.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학부 포르투갈어과 교수.

I. 서론

포르투갈어에서 *nh*는 이중자digraph로 경구개 비강자음 /ɲ/을 표기한다.

그런데 이 경구개 비강자음은 포르투갈어의 다른 자음들과 비교했을 때 아래와 같이 다르다.

(1)(a) *raiva* [(Ráj.)vɛ.]¹⁾ *raide* [(Ráj.)di.] *raile* [(Ráj.)li.]

(1)(b) *rainha* [Rɛ.(í.)ɲɛ.]²⁾

포르투갈어에서 모음충돌은 (1)(a)에서처럼 “모음+고모음³⁾”의 연쇄를 형성하고 있을 때 자음이 하나 후행하여 음절두음이 되면⁴⁾, 연쇄의 뒤쪽 고모음이 과도음화하며 따라서 연쇄가 “모음+과도음⁵⁾”으로 이중모음화함으로서 그 충돌이 해소된다.⁶⁾ 그리고 이중모음화한 연쇄는 동일한 하나의 음절을 형성하며 뒤쪽 과도음이 아닌 앞쪽 모음에 주 강세를 할당받아 음보를 형성한다. 그러나 (1)(b)에서 보듯이 경구개 비강자음 /ɲ/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ɲ/가 “모음+고모음” 연쇄에 후행하여 음절두음이 될 경우에는, 즉각

1) 여기서 .는 음절 경계를 나타내고 ()는 음보를 나타낸다.

2) 포르투갈어의 비강모음은 2모라를 가지며 따라서 중음절임으로서 단독으로 음보를 형성한다. 현기홍(2012) 참조.

3) 포르투갈어 모음의 음소는 /i, e, ɛ, a, u, o, ɔ/의 일곱 개이며 그 중 고모음은 /i, u/의 두 개이다.

4) 본 논문에서는 VCV가 원칙적으로 V.CV로 음절화하며 따라서 모음 사이의 자음은 음절두음이 되는 것으로 본다.

5) 과도음glide은 반모음semivowel 또는 반자음semiconsonant을 의미하는 것으로 약자 G로 표기하며 “활음”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나 본 논문의 분석 맥락 상 “과도음”으로 하기로 한다.

6) Mateus(1975: 38-44)에 의하면 포르투갈어의 모음충돌은 첫째, (1)(a)에서처럼 이중모음화, 둘째, 음절적 자질(±음절적silábico, syllabic) 변동, 셋째, 단순화에 의해 해소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음충돌이 유지가 된다.

선행하는 모음, 즉 고모음이 의무적으로 비강음화하는⁷⁾ 한편 예외적으로 과도음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쇄가 이중모음화하지 않음으로서 모음충돌이 해소되지 않으며 동일한 음절을 형성하지 않는다. 비강음화 하되 과도음화하지 않은 뒤쪽 고모음은 단독으로 음절을 이루며 강세를 할당받아 음보를 형성한다.

이렇게 포르투갈어에서 /ŋ/는 다른 자음들과 달리 의무적 비강음화 외에 예외적 음절화 및 음보화라는 특성을 가진다.

포르투갈어 경구개 비강자음 /ŋ/의 이 같은 음절화 및 음보화의 예외성은 지금까지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거의 연구되지도 않고 있다.⁸⁾ 이에 본 논문은 포르투갈어 경구개 비강자음 /ŋ/의 음절화 및 음보화에 있어서의 예외성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논문은 분석을 위해 아래 네 가지 이론을 수용하여 그 전제로 삼는다.

첫째, 현기홍(2012)에 따라, 포르투갈어의 비강모음에 대해 기저에서 ‘구강모음+비강자음’의 연쇄에서 도출된 것으로 2음소 분석하며, 이로서 연쇄를 이루는 구성성분 분절음들이 각각 하나의 모라를 투사함으로써 중음절을 형성하여 강세를 할당받는 것으로 2모라 분석한다.

둘째, 현기홍(2006, 53-62)의 ‘음절화’에 대한 이론에 따라, 포르투갈어의 각운은 최대 두 개의 자리만을 가지되, 음절핵음은 한 개의 자리를 가지며 모음으로 구성되고 음절말음은 0 또는 한 개의 자리를 가지며 한 개의 자리를 가질 경우에 자음 또는 과도음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셋째, 현기홍(2006, 98-111)의 ‘모음연쇄의 음절화’에 대한 이론에 따라, 포

7) Abaurre & Pagotto(1996, 9)는 브라질 포르투갈어를 대상으로 비강음화에 대한 대규모의 음성적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경구개 비강 자음의 선행 모음 비강음화에 대해 “모음이 경구개 비강 자음을 선행할 때, 그 비강음화는 강세 또는 무강세의 맥락과 상관 없이, 절대적이다”라고 분석한 바 있다.

8) 거의 유일한 선행 연구가 Wetzels(1997) 및 Wetzels(2000)에서 이루어졌을 뿐이다.

르투갈어에서는 모음 충돌 상태에 있는 모음의 연쇄에서 연쇄를 구성하는 모음들이 공명도 위계상으로 상이한 위치에 있을 때 하위에 있는 모음이 과도음화된다고 본다.⁹⁾

넷째, 현기홍(2006, 64-72)의 포르투갈어에 대한 ‘빈도 기반 기술’ 이론과 현기홍(2006, 72-75)의 ‘포르투갈어의 음보화’ 이론에 따라, 포르투갈어는 음장유관quantity-sensitive 언어이며 따라서 음장 유관적 모라 강약격moraic trochee 음보형성을 한다고 본다.

현기홍(2006, 75)에 따라 포르투갈어의 음보형성을 표로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다.

(2) 포르투갈어의 음장유관적 모라 강약격 음보 형성

어말 경음절		어말 중음절	
(a) L (L' L)	$\sigma_{\mu} (\acute{\sigma}_{\mu} \sigma_{\mu})$	(e) LL (H')	$\sigma_{\mu} \sigma_{\mu} (\acute{\sigma}_{\mu\mu})$
(b) H (L' L)	$\sigma_{\mu\mu} (\acute{\sigma}_{\mu} \sigma_{\mu})$	(f) HL (H')	$\sigma_{\mu\mu} \sigma_{\mu} (\acute{\sigma}_{\mu\mu})$
(c) L (H') L	$\sigma_{\mu} (\acute{\sigma}_{\mu\mu}) \sigma_{\mu}$	(g) LH (H')	$\sigma_{\mu} \sigma_{\mu\mu} (\acute{\sigma}_{\mu\mu})$
(d) H (H') L	$\sigma_{\mu\mu} (\acute{\sigma}_{\mu\mu}) \sigma_{\mu}$	(h) HH (H')	$\sigma_{\mu\mu} \sigma_{\mu\mu} (\acute{\sigma}_{\mu\mu})$

10)

본 논문은 아래와 같이 구성 된다:

II.에서 음절화 및 음보화에 있어서의 예외성이 경구개 비강자음 /ɲ/에 한정되어 발생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그 배타성 여부를 분석한다.

III.에서는 예외적 음절화 및 음보화와 동시에 발생하는 선행 모음의 의무

9) 현기홍(2006, 98-111)에 따르면, 이 이론에는 “연쇄를 구성하는 모음들이 공명도 위계상 동일한 위치에 있을 때는 후행 모음이 과도음화 된다.”는 원칙도 포함된다. 자세한 내용은 현기홍(2006: 98-111) 참조.

10) 현기홍(2006, 75)의 “(50) 규칙성에서의 음장유관적 모라 강약격 음보 형성”에 관한 표는 본 논문의 분석 맥락 상 음보 형성 표시를 다소 변경하였다. 여기서 H는 heavy의 약자로 중음절을 의미하며 L은 light의 약자로 경음절을 의미한다. 또한 σ 는 음절, μ 는 모라mora를 의미하는 부호이다. 포르투갈어의 주장세가 어말 삼음절창3 Syllable Window 내에 위치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3음절 단어를 예로 삼았다.

적 비강음화와 관련하여, /ɲ/이 가지는 비강 자음 /m, n/와의 음절두음 및 음절말음 위치에 있어서의 연관성을 살펴본다.

IV.에서는 양음절성에 대해 살펴보고 /ɲ/의 양음절성 여부에 대해 판단한다.

V.에서는 /ɲ/이 음운적으로 양음절적이라면, 그 선행 음절말음으로 기능하는 분절음이 무엇인가를 분석한다.

VI.에서는 /ɲ/의 의무적 비강음화와 예외적 음절화 및 음보와 특성이 최적성 이론에 의해서 어떻게 기술될 수 있는지를 밝힌다.

VII.에서는 본 논문의 분석을 요약한다.

II. /ɲ/의 음절화 및 음보화에 있어서의 배타적 예외성

Wetzels(2000, 12)는 아래 두 개의 예 (3)(a)와 (3)(b)를 제시하면서 (1)(b)에서 제시된 음절화 및 음보화에 있어서의 예외성이 nh/ɲ/뿐만 아니라 lh/ʎ(11)에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고 이 같은 예외성이 포르투갈어의 경구개 자음이라는 부류에 공통된 현상이라고 분석한다.

(3)(a) *graúlho *[grɛ_v.(ú_v.ʎu_v.)]

(3)(b) faúlha [frɛ_v.(ú_v.ʎɛ_v.)]

그러나 이 같은 Wetzels(2006)의 분석은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3)에서 제시된 두 개의 예 중에 첫 번째 예 (3)(a)는 포르투갈어에 존재하지 않는다. 잘못된 예시인 것이다. 한편으로 두 번째 예 (3)(b)는 포르투

11) 포르투갈어의 경구개 자음에는 /ɲ/ 외에 /ʎ/도 있다. /ʎ/ 역시 철자 상으로 이중자이며 lh로 표기된다.

갈어에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이 이중모음화 됨으로서 모음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모음+고모음”의 연쇄에 /s/가 후행하는 포르투갈어의 유일한 예이다.¹²⁾ 따라서 이 유일한 예만을 근거로 음절화 및 음보화에 있어서의 예외성을 경구개 자음의 부류 전반에 대해 일반화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둘째, 더구나 (3)(b)의 예를 보면 위 (1)(b)와 달리, “모음+고모음” 연쇄의 뒤쪽 고모음에 철자 상으로 강세부호가 부가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화에 앞서 이 철자 상으로 부가되는 강세부호가 음절화 및 음보화에 있어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

먼저, I.에서 제시된 대로 본 논문이 분석의 전제로 삼은 이론들에 의하면, “모음+고모음”의 연쇄는 아래의 예 (4)에서처럼 어말¹³⁾에 있거나 위 (1)(a)의 예에서처럼 자음¹⁴⁾이 하나 후행하여 음절두음이 될 때 음절말에 위치하게 된다. 모음충돌 상태인 이 연쇄는 이렇게 음절말에 있을 때 충돌이 해소된 하강이중모음 “모음+과도음”의 연쇄로 도출되게 된다. 그리고 모음이 음절핵음의 한 자리를 채우고 과도음이 음절말음의 한 자리를 채움으로서 중음절 ómu의 각운을 형성한다. 따라서 (ómu)로 음보화되며 강세는 음절핵음인 모음에 할당된다. (2)(e)-(2)(h)의 어말중음절의 경우에 해당된다.

(4) pai [(pájj.)]

12) 이는 포르투갈어 사전 “Academia das Ciências de Lisboa (2001), *Dicionário da Língua Portuguesa Contemporânea*, Lisboa: Verbo.”에 대한 분석을 따른 것이다. 현기홍(2006, 40-41)에 의하면, 이 포르투갈어 사전은 리스본 과학 학술원에 의해 1988년에 시작되어 2001년에 완성되었고, 포르투갈어의 표준어인 리스본 및 코잉브라 지역의 현대 중부 방언에 대해 최초로 국제음성학회의 음성 알파벳에 의거한 음성 전사를 하고 있으므로 포르투갈어의 어휘 및 음성·음운 기술에 있어 표본적 자료가 되고 있으며, 수록된 어휘의 수가 거의 70,000여개에 이룸으로써 포르투갈어 어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 또는 기술에 적절한 자료이다.

13) “단어 말”을 의미한다.

14) 특별히 “/j/를 포함한 자음”이라고 하지 않을 때는 “/j/를 제외한 자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들 “모음+고모음”의 연쇄는 아래 (5)(a)-(5)(b)와 같은 경우에 하강이중모음을 형성하지 않는다.

- (5)(a) adail [e_μ.d_eμ.(i_μi_μ.)] raiz [Re_μ.(i_μf_μ.)] sair [se_μ.(i_μf_μ.)]
 (5)(b) saimos[s_eμ.(i_μf_μ.)mu_μ<f>.]¹⁵⁾ demiurgo[di_μ.mi_μ.(ú_μf_μ.)gu_μ.]

위 I.에서의 전제 이론에 의하면, 포르투갈어는 음절핵음에 의무적으로 한자리를 가지는 한편, 음절말음에는 선택적으로 0자리 또는 한 자리를 가짐으로서, 각운이 최대 두 자리만을 가질 수 있다.

“모음+고모음” 연쇄에 (5)(a)에서처럼 어말에서 자음이 후행하여 음절말음이 되거나 (5)(b)에서처럼 자음이 둘 후행하여 뒤쪽의 자음이 후행하는 음절의 두음이 되는 한편 앞쪽의 자음이 선행하는 음절의 말음이 될 경우에는, (4)와 같이 뒤쪽 고모음이 과도음화하여 “모음+고모음”의 연쇄가 이중모음화하게 되면 과도음이 후행하는 자음과 함께 하나의 자리만을 가지는 음절말음에 함께 부적격 투사될 수밖에 없다. 하나의 자리를 가지는 음절말음에 두 개의 분절음, 즉, 과도음과 자음이 동시에 투사됨으로서 부적격한 음절말음을 이루게 되고 그럼으로써 부적격한 각운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이 같은 부적격성을 저지하기 위하여 연쇄가 이중모음화하지 않고 모음충돌 상태로 유지되면서 그 연쇄를 이루는 모음과 고모음이 각각의 음절을 형성하게 된다. 앞쪽 모음은 단독으로 경음절을 이루고, 뒤쪽 고모음은 후행하는 자음과 함께 음절을 이루는데, 동일한 음절에 속하게 된 고모음과 자음은 각각 음절핵음과 음절말음의 한 자리씩을 채움으로서 중음절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중음절 ómu의 각운을 형성하고 (ómu)로 음보화되며 음절핵음인 모음에 강세를 할당받는다. (5)(a)는 (2)(e)-(2)(f)에, (5)(b)는 (2)(c)의 경우에 각각 해당된

15) <>는 음절제외적extrasyllabic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현기홍(2006) 참조.

다.

따라서 이 경우 이 “모음+고모음” 연쇄에 후행하는 음절말음 자음은 고모음이 과도음화하는 것을 지지함으로서 이 연쇄가 이중모음화하는 것을 저지하며 따라서 모음충돌이 해소되는 것을 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 (6)(a)-(6)(b)의 예는 한편으로 위 (5)(a)-(5)(b)와 달리, “모음+고모음” 연쇄에 음절말음인 자음이 후행하고 있지 않아 음절 말에 있으나 (4) 및 (1)(a)와 달리 연쇄의 뒤쪽 고모음에 철자 상으로 강세부호를 부가 받고 있다. 이것은 이 고모음이 음절화 및 음보화 이전에 기저에서 구별적으로 diacritically 강세를 할당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 고모음은 기저에서 강세모음임으로서 과도음화 할 수 없고 앞쪽 모음과 함께 이중모음화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앞쪽 모음이 음절핵음으로서 단독으로 경음절을 이루는 한편, 뒤쪽 고모음 또한 음절핵음으로서 음절말음 없이 단독으로 각 운을 형성하여 경음절을 이룬다. (6)(a)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강세를 포함하는 음보를 형성하는 한편¹⁶⁾ (6)(b)의 경우에는 후행하는 음절과 (2)(a)에 해당되는 음보를 형성한다.

(6)(a) sai [se_μ.(i_μ.)]

(6)(b) doído [du_μ.(i_μ.du_μ.)]

16) 예외적 어말음절강세에 해당되는 경우로 이 같은 음보화 역시 예외적이다. 현기홍 (2006, 68)에 의하면 포르투갈어에서 이같이 어말 경음절에 강세를 할당받는 경우는 포르투갈어 사전 “Academia das Ciências de Lisboa (2001), *Dicionário da Língua Portuguesa Contemporânea*, Lisboa: Verbo.”의 전체 어휘에서 1.21%에 지나지 않는다. 이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강세할당으로 단모음이 장음화하여 하나의 모라를 더 할당 받으면서 두 개의 모라를 가지게 되어 단독으로 중음절을 이루면서 독립적으로 음보를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sai [se.(i_μ.)] Myers(1987)의 STRESS-TO-WEIGHT 제약이 작용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는 본 논문의 분석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차후로 미루고자 한다.

음절말음인 자음이 후행하는 위 (5)(a)-(5)(b)의 경우와 결과적으로 동일한 음절화 및 음보화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 (3)(b)에서 음절말에 위치한 “모음+고모음” 연쇄의 뒤쪽 고모음에 철자 상으로 부가되어 있는 구별적 강세부호는 위 (6)(b)와 마찬가지로 이 고모음이 구별적으로 강세를 할당받음으로서 강세모음이 되어 과도음화를 저지하며 이중모음화를 저지함으로서 모음충돌 해소를 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3)(b)의 “모음+고모음”의 연쇄에서 고모음에 강세부호가 구별적으로 부가되어 있다는 것과 그럼으로써 이 연쇄가 이중모음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강세부호 없이도 이중모음화하지 않는 /ŋ/와 음절화 및 음보화에 있어서의 예외성을 공유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ŋ/의 경우에 선행하는 ‘모음+고모음’ 연쇄 중 고모음에 강세부호가 붙는 경우는 없다.¹⁷⁾

따라서 결론적으로, Wetzels(2000, 12)에서의 분석과 달리 포르투갈어에서는 어떤 자음도 /ŋ/가 가지는 모음충돌 해소와 관련된 음절화 및 음보화에 있어서의 예외성이라는 특성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이같은 음절화 및 음보화에 있어서의 예외성이 /ŋ/에만 국한되며 따라서 배타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둔다.

Ⅲ. /ŋ/의 의무적 비강음화와 예외적 음절화 및 음보화에 있어서의 음절말음 /m, n/와의 연관성

Ⅱ.에서의 분석에 따라 음절화 및 음보화에서의 예외성이 경구개 자음에 공통된 특성이 아니라 /ŋ/의 배타적 특성이라는 사실이 확인됨으로 해서,

17) cf. rainha, bainha, ladainha, tainha, moinha, broinha, ventoinha, fuinha, fuinho.

/ɲ/에 의한 예외적 음절화 및 음보화가 위 (1)(b)의 예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와 함께 발생하는 /ɲ/에 의한 선행 모음의 의무적 비강음화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이어서 제기될 수 있다.

포르투갈어에서 발생하는 비강음화는 항상 역행 비강음화regressive nasalization이며, 따라서 포르투갈어에서 선행하는 모음의 비강음화는 아래 (7)(a)-(7)(b)에서 보듯이 다른 아닌 비강자음이 가지는 차별적 특성 중의 하나이다.

(7)(a) cama [(kɛ̃.mɐ.)/(kɛ̃.mɐ.)]¹⁸⁾

(7)(b) cana [(kɛ̃.nɐ.)/(kɛ̃.nɐ.)]

(7)(c) sanha [(sɛ̃.)ɲɐ.]

포르투갈어의 비강자음의 음소는 /m, n, ɲ/이다.

음절두음으로서 /m, n/는 아래 (8)(a)-(8)(b)에서 보듯이 때 선행모음을 선택적으로 비강음화 시키는데, 선행모음이 강세모음일 경우에 위 (7)(a)-(7)(b)에서처럼 비강음화 경향이 강해진다. 그러나 이에 비해 (7)(c) 및 (8)(c)에서 보듯이 음절두음으로서 /ɲ/의 선행모음 비강음화는 그 강세여부와 관련 없이 이루어지며 따라서 의무적이다.

(8)(a) camada [kɐ.(má.dɐ.)/kɛ̃.(má.dɐ.)]

(8)(b) canada [kɐ.(ná.dɐ.)/kɛ̃.(ná.dɐ.)]

(8)(c) sanhaço [sɛ̃.(ɲá.su.)]

18) /는 “또는”을 의미하는 부호로 사용하였으며, 조음표기는 /가 있어 두 개일 경우에 발생빈도가 더 높은 조음을 먼저 기록하였다. 또한 논의 상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 음절핵 음 및 음절말음에 대한 모라_p 표시는 생략한다.

/ɲ/과 마찬가지로 /m, n/도 비강자음으로서 음절두음일 때 선행모음을 비강음화 시키기는 하나 그 비강음화는 선택적이며 따라서 음절두음 /ɲ/의 의무적인 비강음화와 같지 않다.

또한 음절두음으로서 /m, n/은 음절두음으로서 /ɲ/이 가지는 음절화 및 음보화의 예외성도 가지지 않는다.

(9)(a) andaime[ẽ.(dáj.)mi.]

(9)(b) paina[(Páj.)nɐ.]

(9)(a)-(9)(b)에서 보듯이 음절두음으로서 /ɲ/가 가지는 선행 “모음+고모음” 연쇄의 모음충돌 해소와 연관된 음절화 및 음보화에서의 예외성을 음절두음으로서 /m, n/은 공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연쇄는 다른 자음들이 음절두음일 때와 마찬가지로 규칙적으로 이중모음화하고 동일 음절로 음절화하며 그 모음에 강세를 할당받는 음보를 형성한다.

요약하면, 음절두음 /ɲ/는 선행모음의 의무적 비강음화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모음충돌 해소와 관련된 예외적 음절화 및 음보화에 있어서도 음절두음인 /m, n/과 상이하다.

그러나 여기서 특기해야 할 사실은,

첫째, /ɲ/이 음절말음의 위치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과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절말음인 /m, n/과 동일한 비강음화 특성을 가지며,

셋째, 음절말음인 /m, n/과 동일한 음절화 및 음보화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먼저, /ɲ/의 음절말음 위치에 있어서의 발생여부와 관련하여, Reed & Leite(1947)는 /ɲ/가 음절말음으로 발생한다고 보았다.

Reed & Leite(1947)는 비강자음소로 /m, n, ɲ/를 설정하고, 이들 비강자음 음소들이 음절두음으로서 각각 [m, n, ɲ]¹⁹⁾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음절말음으로서는 /m, n/이 동기관 파열음homorganic plosive 앞에서 각각 [m, n]으로 실현되는 한편, /ɲ/은 여러 변이음으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어중 음절말에서는 [k, g]가 후행하지 않으면 [ɲ]으로 실현되고 [k, g]가 후행하면 []로 실현되는 한편, 어말 음절말에서는 모음 비강음화와 전설모음 뒤에서의 짧은 치조구개 폐쇄alveopalatal closure 또는 후설모음 뒤에서의 짧은 연구개 폐쇄를 통해 [ɲ]으로 또는 []으로 실현된다고 하였다.^{20) 21)}

Wetzels(1997: 206) 역시 어중에서 동일 음절의 “모음+비강자음”의 연쇄는 장음화된 비강모음, 또는 “비강모음+동기관 비강 접근음approximant”, 또는 “비강모음+구강자음+동기관적 비강자음” 중의 하나로 조음된다고 하며, 아래에서 보듯이 [ɲ,]도 어중 음절말음으로서 발생한다고 하였다.

(10)(a) lindo [lĩ .du]/ [lĩⁿ .du]/ [lĩ^ɲ .du]

(10)(b) tempo [tẽ .pu]/ [tẽ^m .pu]/ [tẽ^ɲ .pu]

(10)(c) banco [bẽ .ku]/ [bẽⁿ .ku]/ [bẽ^ɲ .ku]

(10)(d) onda [õ .dɛ]/ [õⁿ .dɛ]/ [õ^ɲ .dɛ]

19) 본 논문 표기의 일관성을 위해 Reed & Leite(1947)의 /ñ/을 /ɲ/로 교체하여 표기하였다.

20) Reed & Leite(1947, 196b)는 브라질 포르투갈어의 표준 서용 · 파울루São Paulo 방언에 대한 연구에서 최초로 어말 비강모음에 비강자음분절음이 후행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들은 모음이 전방적anterior이면 [ɲ]이 후행하며, 후방적posterior이면 []가 후행한다고 보고 이를 이 방언에 대한 의무규칙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Head(1965, 68, 188ff)는 이 규칙을 재고하고, 의무규칙으로 설정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Almeida(1971, 28, 33, 35ff; spectrograms 16, 25a, b, 26b, 27b)는 이 현상을 관찰하면서 청취적 느낌에 의존하지 않고 기구를 사용하여 이들 분절음의 존재를 증명하였으며, “어말위치에 있는 비강모음은 비강자음 분절음에 의해 후행될 수 있다. 이 분절음은 전방적anterior 모음 뒤에서는 [ɲ]이며, 후방적posterior 모음 뒤에서는 []이다”고 하고 Head(1965)에 이어 이를 선택규칙으로 설정하였다. 현기홍(2012, 263, f17)에서 재인용.

21) 예를 들면, tem[tɕĩɲ]의 [ɲ] 또는 um[ũ]의 []이다. 현기홍(2012, 250, f10)에서 재인용.

(10)(e) nunca [nú.ke]/ [nú .ke]/ [nú .ke]²²⁾

또한 어말에서도 [ɲ,]가 아래와 같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11)(a) fim [fí.ɲ.]

(11)(b) vem [vé.ɲ.]

(11)(c) lá [lá .]

(11)(d) bom [bó .]

Reed & Leite(1947)와 마찬가지로 [ɲ,]가 음절말음으로서 선행모음의 전후방 조음위치에 따라 각각 달리 실현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Wetzels(1997)는 /ɲ, /가 기저표시에서는 이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함으로서, [ɲ,]의 음절말에서의 실현이 이음적일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현기홍(2012: 265)에 따르면, 어말 음절말음으로서는 /m/과 /n/이 다른 양태를 보인다.

(12)(a) am: acabam [e.ká.bẽw̃.]²³⁾

(12)(b) em: batem [bá.tẽ̃.]

(12)(c) im: jardim [ʒer.dí.]

(12)(d) om: bombom [bõ.bõ.]

(12)(e) um: atum [e.tú.]

22) Wetzels(1997)의 예를 부분적으로 인용하되 Wetzels(1997)와 달리 그 음성표기는 기술 대상 단어 전체로 확대하였다. 단, 비강모음에 후행하는 비강자음의 표기를 예에서처럼 한 것은 그 이유를 알기 어렵되 그대로 전사하였다. 또한 Wetzels(1997)에서 음보화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모라표시 및 음보화 표시는 생략하였다.

23) 본 논문의 음성표기에서도 논의 상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 모라표시 및 음보화 표시는 생략한다.

어말의 /m/은 선행하는 모음을 의무적으로 비강음화시키고 자신은 탈락한다.

그러나 어말의 /n/은 -an의 경우에만 그 것도 지극히 일부분의 경우에만 한정되어 선행하는 모음을 비강음화시키고 자신은 탈락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선행하는 모음을 비강음화시키지도 않고 자신이 탈락하지도 않는다.

(13)(a) an: poliban[po.li.bé.] íman[i.men.]

(13)(b) en: abdómen[eb.dó.men.]

(13)(c) in: spin[spín.]

(13)(d) on: cláxon[klák.són.]

(13)(e) un: Ø

여기서 어말 음절말음으로서 /m/과 /n/의 발생이 환경과 무관한 자의적인 것이며 기저에서 각각 자의적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ɲ/의 발생도 그럼으로서 자의적일 수밖에 없으나, 어말 음절말 위치에 /ɲ/가 발생하는 예는 없다.

(14) *tenh */teɲ/

한편 아래 (15)에서 보듯이 어중 음절말음으로서 /m, n/은 발생한다. 단, []은 후행 자음의 조음위치에 동화되어 동기관적으로 조음되는 변이음일 뿐이다. 본 논문은 논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말에서와 마찬가지로 어중에서도 음절말음으로서 /m, n/의 발생이 자의적으로 설정된다고 보고자 한다.

/ɲ/는 어말 음절말에서와 마찬가지로 어중 음절말음으로서도 발생하지 않는다.

- (15)(a) campo [kɛ̃ .pu.]
- (15)(b) mando [mɛ̃ .du.]
- (15)(c) manga [mɛ̃ .gɐ.]
- (15)(d) *sanhha */saɲɲa/ [sɛ̃ .ɲɐ.]

(15)(d)의 어중 음절말의 경우에, /ɲ/을 음운적 중복자음phonological geminate이라고 분석한 Wetzels(2006)에 따라, /ɲ/를 기저에서 /ɲɲ/인 것으로 해석하고 /ɲ/가 어중 음절말음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이는 Wetzels(2006)의 분석을 받아들이는 경우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Wetzels(2006)의 음운적 중복자음 분석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따라서 /ɲ/가 어중 음절말음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²⁴⁾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어중 및 어말의 음절말음으로서 음소 /ɲ/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둘째, /ɲ/가 음절말음으로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음절말음인 /m, n/과 동일한 비강음화의 의무성이라는 특성을 가진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m, n/은 음절말에 위치하여 음절말음으로 발생하면서 (15)(a)-(15)(c)에서 보듯이 선행모음을 의무적으로 비강음화 시킨다.²⁵⁾ 선행 모음을 비강음화한

24) /ɲ/은 어두에서 드물게 발생한다. nhá, nhabedja, nhaneca, nhanhero, nhô, nhobedje, nhomincá, nhomincá, nhonha, nhoque, nhum 이는 본 논문 V.에서의 분석에 따라 /ɲ/이 기저에서 양음절성을 갖는 /ɲɲ/이며 포르투갈어는 어두 및 어중에서 조음위치가 다른 비강자음의 연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cf. mnenónico, amnistia

25) 이같이 음절두음으로서의 /m, n/이 선행모음을 선택적으로 따라서 자의적으로 비강음화시키는 한편, 음절말음으로서의 /m, n/이 선행모음을 의무적으로 비강음화시키는 것에 대해, Wetzels(1997, 217)는 이음적 비강음화와 대비적 비강음화라고 하며 구

이후의 음절말음 /m, n/은 탈락하기도 하고 탈락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조음되기도 하여 그 탈락여부가 선택적이기는 하지만, 비강음화는 의무적이다.²⁶⁾

음절말음으로서 발생하지 않는 /ɲ/가 음절말음으로서 발생한 /m, n/과 선행 모음의 의무적 비강음화라는 특성을 공유하는 것이다.

셋째, 이에 더해 /ɲ/이 음절말음으로서의 /m, n/과 음절화 및 음보화에 있어서의 예외성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아래의 예들을 들 수 있다.

(16)(a) Coimbra [ku.(f.)bre.]

(16)(b) ainda [e.(f.)de.]

(16)(c) contribuinte[kõ.tri.bu.(f.)ti.]

위 (16)의 예들을 보면 (1)(b)에서의 /ɲ/처럼, 음절말음 /m, n/이 “모음+고모음”의 연쇄가 모음충돌 해소를 위해 이중모음화하는 것을 지지하여 그 연쇄를 형성하는 모음들이 각각의 음절을 형성하도록 하며, 연쇄의 뒤쪽 고모음을 의무적으로 비강음화시킨 후에 탈락함으로써 비강음화된 고모음이 단독으로 증음절로서 음보를 형성하도록 한다. 강세는 비강음화된 고모음에

분하고, 전자를 언어적 및 비언어적 변이variation에 민감한 가변적variable 규칙의 결과라고 보는 한편 후자를 연쇄의 어떤 지점에서든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전자는 강세모음에서 체계적으로 실현된다고 하고 후자는 강세와 관계없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현기홍 2014, 79) 재인용.

26) (15)(a) [kém.pu.], (15)(b) [mén.du.], (15)(c) [mé .ge.], (16)(a) [ku.(f.m)bre.], (16)(b) [e.(f.n.)de.], (16)(c) [kõn.tri.bu.(f.n.)ti.]. 이 같은 사실은 포르투갈어의 모든 비강모음이 음소목록에는 있지 않으며, 기저에서 “모음+비강자음”의 연쇄로부터 표면적으로 도출된다고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m, n/이 기저에서 음절말음으로 존재하며, 따라서 선행모음과 증음절을 형성하고 선행모음을 의무적으로 비강음화하고, 비강음화된 비강모음이 강세를 할당받아 음보를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것이다. 현기홍(2012) 참조.

할당된다.

음절두음으로 발생하는 /ɲ/이 음절말음인 /m, n/과 의무적 비강음화뿐만 아니라 예외적 음절화 및 음보화라는 특성까지 공유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ɲ/는 음절두음으로만 발생하여 음절말음으로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음절두음으로서의 /m, n/과는 의무적 비강음화뿐만이 아니라 예외적 음절화 및 음보화에 있어서도 상이하지만, 음절말음으로서의 /m, n/과는 의무적 비강음화뿐만이 아니라 예외적 음절화 및 음보화에 있어서도 동일한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ɲ/의 양음절성

양음절성Ambisyllabicity은 조성식(1990, 52)에 따르면 하나의 자음이 두 개의 음절에 동시에 소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음 C가 두 모음 V1V2 사이에 발생하여 V1CV2가 될 때, V1C.V2로서 음절말음이 되기도 하고 V1.CV2로서 음절두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양음절성 분석을 처음 시도했던 Trager & Bloch(1941, 233)는 아래 (17)에 대해 “이들과 같은 경우에 있어, 음절 사이에 있는 과도음은 양음절적이다 (즉, 음성적으로 첫 번째 음절의 끝과 두 번째 음절의 시작을 형성한다,,)”라고 하였다.

(17) being[biɲi] booning[buɲi]

이서 양음절성 분석을 구체화한 Kahn(1976, 17-33)은 음절구조 할당 규칙들Syllable-Structure Assignment Rules에서 규칙III, 규칙IV 및 규칙V를 통해 양음절성을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규칙 III에서 앞 음절이 모음 또는 과도

음으로 끝나고 뒤 음절이 무강세 모음을 가질 경우에 뒤 음절의 첫 자음²⁷⁾은 앞 음절에도 속하여 양음절적이라고 보았다.

(18) 규칙III

$$\text{in [-cons] C C}_0 \left[\begin{array}{c} \text{V} \\ - \text{stress} \end{array} \right] \text{ associate C and S1}$$

$$\begin{array}{ccc} | & \backslash & | \\ \text{S1} & & \text{S2} \end{array}$$

이 같은 양음절성 분석은 영어에서의 기식음화^{aspiration}, 설탄음화^{flapping}를 설명하기에 유용하였으며 따라서 음성적인 것이었다.

Durand(1990, 218-219)는 양음절성을 허가함으로써 다음절 형태소^{polysyllabic morpheme}의 구조와 단음절 형태소^{monosyllabic morpheme}의 구조를 연관 지을 수 있다고 보았다.

Durand(1990, 218-219)에 따르면 단음절 형태소는 아래 (19)(a)-(19)(b)에서 보듯이 어휘적으로 강세가 할당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자음이 후행하지 않으면 단모음^{short vowel}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19)(c)에서처럼 다음절 형태소에서는 강세음절이 개방음절일 수 있으며 단모음을 포함할 수도 있다.

(19)(a) [bɔp]	[læk]	[nek]
(19)(b) *[b]	*[læ]	*[ne]

27) 여기서 자음은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다. 단수일 경우에는 그 단수의 모음이 양음절적이고 복수의 경우에는 그 자음군의 첫 자음이 양음절적이다.

(19)(c) pe.trol

ci.ty

wre.cker²⁸⁾

그러나 Durand(1990, 218-219)는 이 경우에 양음절성이 허가되면 “단모음은 강세 각운의 유일한 구성성분이 될 수 없다, 즉, 강세음절의 각운은 복잡적이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어 단음절 형태소의 구조와 다음절 형태소의 구조에 대한 단수의 일반화가 가능해지며, 따라서 양음절성이 강세할당에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강세와 중음절 사이의 상관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양음절성 분석은 음절무게와 관련된 것으로 따라서 음운적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양음절성은 음성적일 수도 있고 하고 음운적일 수도 있다. 그럼으로써 양음절성과 관련하여서 이제 논쟁이 대상이 되는 것은 양음절성이 기저적인 것이냐 도출적인 것이냐 하는 것이다.²⁹⁾

포르투갈어에서는 과도음의 양음절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인지되어 있다.

현기홍(2006, 354)에 따르면, 포르투갈어에서 모음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삽입된 과도음은 아래 (20)에서처럼 선행 음절의 음절말음으로뿐만 아니라 후행 음절의 음절두음으로도 기능함으로써 양음절성을 가진다.

(20) passeio [pe.(sé.ju.)/ pe.(séj.)ju.]

passeie [pe.(sé.ji.)/ pe.(séj.)ji.]

과도음이 양음절성으로 기능함으로써 강세할당 위치를 변화시키지는 않으나 음보형성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제 본 논문은 포르투갈어 경구개 비강자음 /ɲ/의 음절화 및 음보화에 있어서의 예외성을 분석하기 위해 포르투갈어의 /ɲ/이 양음절성을 가지는

28) Durand(1990, 219)의 음절경계 \$를 본 논문의 표기 일관성을 위해 .로 교체하였다.

29) 의존음운론 연구자들은 영어 같은 언어에서의 기저적 양음절성을 주장하는 한편,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양음절성을 도출 음운현상으로 보는 경향이다.

것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첫째, 포르투갈어의 경구개 비강자음 /ɲ/이 음절두음으로서 비강음화에 있어서의 의무성과 음절화 및 음보화에 있어서의 배타적 예외성을 특성으로 하며,

둘째, /ɲ/이 음절두음으로는 발생하는 한편 음절말음으로서는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셋째, 음절두음으로서의 /m, n/이 /ɲ/이 가지는 이 같은 예외성과 의무성을 공유하고 있지 않는 한편, 음절말음으로서의 /m, n/이 /ɲ/이 가지는 이 같은 예외성과 의무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석한 바 있다.

이 같은 분석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포르투갈어의 /ɲ/이 음절두음으로서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음절말음으로서도 기능하고 있다고 설정하고, /ɲ/이 음절두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음절말음으로서 기능하는 양음절성을 가진다고 설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양음절성이 음절무계와 관련되어 있음으로서 음운적이라고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포르투갈어의 경구개 비강자음 /ɲ/가 음운적 양음절성을 가진다.”라고 설정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 외에, /ɲ/의 음운적 양음절성에 대한 또 다른 근거가 되는 사실은 /ɲ/가 “모음+고모음”의 연쇄에 후행할 때, 다른 자음과 달리 연쇄와 /ɲ/ 사이에 어떤 자음의 발생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ɲ/앞에 중음절이 선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ɲ/가 양음절적이며 따라서 이미 음운적으로 선행모음의 음절말음으로 기능하면서 음절말음의 한 자리를 채우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21) *rainha

*rainha

또한, 포르투갈어에서는 어말 두 번째 음절이 중음절이면 어말셋째음절 강세를 가질 수 없으며, 동일한 제약이 /ɲ/에도 해당된다.

(22) *cáderno *sábendo *cadeira

즉, (23)(a)에서 보듯이 3음절이상 단어에서 /ɲ/가 어말음절과 어말둘째음절 사이에 위치할 때 강세는 어말셋째음절 강세일 수 없다. 이는 (23)(b)에서 보듯이 /m, n/과 다르다.

(23)(a) *cáminho *cózinha *desenho
 (23)(b) ébano égamo

이 제약 역시 /ɲ/가 양음절적이라고 설정할 경우에만 설명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어 포르투갈어의 모든 비강자음이 양음절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래 예들이 기저에서 양음절적 /m, n/을 가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가라는 의문이다.

(24) cama */kamma/ *[(kɛ́.)mɛ.] cana */kanna/ *[(kɛ́.)nɛ.]³⁰⁾

그러나 이 같은 의문은 타당하지 않다. 그 것은 아래의 (25)의 예에서 그 기저에 양음절적 /m, n/을 설정할 경우에 표면에서 부적격 도출된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

(25) andaime /andaimme/ *[ɛ̃n.dá.(í m.)mɛ.]

30) cf. (7)(a)-(7)(b)

paina [(páj.)nɐ.] /painna/ *[pɛ.(í n.)nɐ.]³¹⁾

따라서 본 논문은 포르투갈어에서 /ɲ/는 음운적 양음절성을 가지는 유일한 음소라고 본다.

V. 양음절적 /ɲ/의 선행 분절음

포르투갈어의 /ɲ/이 음운적으로 양음절적인 것으로 보았을 때, 이로 해서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은 양음절적 /ɲ/의 선행 음절의 말음으로 기능하는 분절음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III에서의 분석과 관련하여, 아래 (26)의 예들에서 “모음+고모음” 연쇄의 뒤쪽 고모음이 과도음화하지 않고 중음절화하는 것은 바로 음운적으로 양음절적인 /ɲ/의 선행 분절음이 그 음절의 말음 한 자리를 채워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음절말음의 자리를 채우는 것은 /ɲ/이 선행 모음을 의무적으로 비강음화시킴으로서 선행모음에 전이시킨 비강음성nasality와 관련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그 비강음성은 음운적일 수밖에 없다. /ɲ/의 음운적 양음절성을 설정했을 때 의무적으로 전이되는 음운적 비강음성 외의 다른 어떤 분절음을 선행 음절을 중음절화 시키는 음절말음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³²⁾

(26) *bainha*[be.(í.)nɐ.] *moinha*[mo.(í.)nɐ.] *fuinha*[fu.(í.)nɐ.]

31) cf. (9)(a)-(9)(b)

32) 여기서 /ɲ/은 선행 음절의 음절말음 자리를 채우며 선행음절을 중음절화하는 음운적 양음절성을 가짐으로서 당연히 자음무계단위로서 기능하며 뿌리 교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ɲ/은 음운적으로 양음절적이어서 자음무계단위로서 선행음절의 음절말음 자리를 채우며 그 뿌리교점에 위치하는 것으로 본다.

(29) *connosco* [ko.bóʃ.ku.]

그리고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Wetzels(1997, 220-221)도 언급했듯이 /ɲ/가 경구개음화 자음palatalized consonant이라는 사실이다.

Wetzels(2006, 220-221)는 이것이 /ɲ/가 전방적이고 설정적인 단일 자음의 조음 대신에 이차적인 모음적³⁴⁾ 조음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하고 아래의 예들을 제시하였다. 구어체의 조음에서 경구개 자음의 1차적 협착constriction이 완전히 상실되면서 설정적 과도음만 조음된다는 것이다.

(30)(a) *vinho* [vĩ.ɲu./vĩ.ʃu.]

(30)(b) *tenha* [tẽ.ɲɐ./tẽ.ʃɐ.]

(30)(c) *banha* [bẽ.ɲɐ./bẽ.ʃɐ.]

(30)(d) *sonho* [sõ.ɲu./sõ.ʃu.]

(30)(e) *punho*[pũ.ɲu./pũ.ʃu.]

/ɲ/가 경구개음화 자음이라는 것은 통시적으로 로마제국시대의 이베리아 서부, 현재의 포르투갈 지역에서 이미 무강세의 i 및 e가 다른 모음이 후행할 경우에 과도음으로 조음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해서 아래의 같은 경우에 li 및 ni, ne가 각각 [lj] 및 [nj]로 조음되다가, 이윽고 경구개음화 하여 [ɲ] 및 [ʎ]로 변화하였다는 사실³⁵⁾로도 뒷받침될 수 있다.

(31) *filium* “filho” *seniorem* “senhor” *teneo* “tenho”

34) Wetzels(2006, 220)가 언급한 “모음적vocalic”이라는 것은 자음적 자질 [+자음적 onsonantal] 자질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것은 이 이차적 조음이 곧 반모음 또는 반자음이라고도 하는 과도음j이기 때문이다.

35) Teyssier(1982, 9-10)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첫째, 음절말음으로서 비강 자음은 /m/ 또는 /n/만이 발생한다는 III.에서 분석에 따르는 한편,

둘째, 위에 언급한 통시적 사실에 근거하고,

셋째, Wetzels(1997)의 경구개음화 분석을 받아들여서,

음운적으로 양음절적인 경구개 비강 자음 /ɲ/의 선행 분절음이 /n/인 것으로 본다.

따라서 아래 예의 경우 그 기저구조와 표면구조는 아래와 같다.

(32)(a) *sanha* /sanɲa/ [(s^ê_{μμ}.)_{νεμ}.]

(32)(b) *rainha* /rainɲa/ [Re_μ.(f_{μμ}.)_{νεμ}.]

VI. 최적성이론 분석

이중모음화에 의한 모음충돌 해소를 설명하기 위해, 본 논문은 현기홍 (2006, 98-111)에 따라 공명도 위계에 의거 'λ를 변화시키지 마라'로 정의될 수 있는 아래 (33)의 동질성 제약군(identity constraint family)을 설정한다.

(33) 분절음 동질성 제약군

ID/a >> ID/ε, ɔ, e, o >> ID/i, u

기본적 음절 구조 제약 중 아래의 제약들을 적용한다.

(34)(a) ONS (Onset) (Kager 1999, 93)

음절은 음절두음이 있어야 한다.

(34)(b) *COD (No Coda) (Kager 1999, 94)

음절은 음절말음이 없어야 한다.

음보화를 설명하기 위해 현기홍(2006, 112-116)에 따라 아래의 제약들을 설정한다.³⁶⁾

(35)(a) FTBIN (Foot Binarity) (McCarthy & Prince 1993, 43)(Roca & Johnson 1999, 605)

음보는 음절 분석 또는 모라 분석에서 2분지이다.

(35)(b) TRCH (Trochee) (Roca & Johnson 1999, 606), (Kager 1999, 172)

음보는 좌변에 머리를 가진다.

(35)(c) WSP (Kager 1997, 155)

중음절은 강세를 할당받는다.

(35)(d) RMOST (Rightmost) (Kager 1999, 167)

머리 음보는 운율 단어에서 우변에 위치한다. Align(Head-Foot, R, PrWd, R)

이중모음화 발생 여부에 따른 모음충돌 해소와 모음충돌 유지는 아래와 같이 설명된다.

(36)(a) raiva /raiva/ [(R_μj_μ.)v_eμ.]³⁷⁾

(36)(b) sair /sair/ [s_eμ.(i_μr_μ.)]

36) 기본적 음절화에 대한 최적성이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한다. 현기홍(2006, 98) 참조.

37) 본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입력형의 음절화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따라서 음절화와 관련되는 WEIGHT-BY-POSITION 제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음절말음에 대한 모라 할당과 이를 통한 음절무게 결정 등의 과정은 출력형에 이미 적용된 상태로 설명된다. WEIGHT-BY-POSITION 제약: 음절말음은 모라를 가진다. (Kager(2006, 146, 269)).

/ra _μ i _μ va _μ /	FT BIN	TRCH	WSP	ID/a	ONS	R MOST	ID/εoεo	ID/iu	*COD
(r _á _μ .i _μ .vε _μ)	*!				*				
(r _á _μ .i _μ .)vε _μ					*!	*			
(ra _μ .i _μ .)vε _μ		*!			*	*			
ra _μ .(i _μ .vε _μ)					*!				
ra _μ .(i _μ .vá _μ)		*!			*				
(r _á _μ .i _μ .vε _μ)	*!				*	**			
ra _μ .(i _μ .)vε _μ	*!				*	*			
ra _μ .i _μ .(vá _μ)	*!				*				
(r _j _μ i _μ .vε _μ)	*!			*					
(r _j _μ i _μ .)vε _μ				*!		*			
☞(r _á _μ j _μ .)vε _μ						*		*	*
☞sa _μ .(i _μ r _μ .)					*				*
(sá _μ j _μ r _μ .)	*!							*	*

선행 모음의 의무적 비강음화와 관련하여 현기홍(2012, 275)에 따라 아래의 제약을 설정한다.

(37)(a) *VNAS (Kager 1999, 28)

모음은 비강음이 아니어야 한다.

(37)(b) *VORALN (Kager 1999, 28)

동일 음절의 비강음 앞에서 모음은 구강음이 아니어야 한다.³⁸⁾

또한 현기홍(2012, 275)에 따라 아래의 제약 또한 설정한다.

(38)(a) MAX-IO (N) (McCarthy & Prince 1995)

38) 많은 언어에서 모음이 동일음절의 비강폐쇄음을 선행할 때 그 모음은 비강음화된다. 이 같은 보편적 유표성은 (37)(b)에 의해 표현된다.

[+nasal]자질이 입력형에 있다면, 출력형에도 있어야 한다.³⁹⁾

(38)(b) MAX- μ -IO (McCarthy & Prince 1995)

입력형에 있는 모라는 출력형에도 있어야 한다.⁴⁰⁾

선행모음의 의무적 비강음화는 아래와 같이 설명된다.

(39) sanha /san η a/ [(s \acute{e} μ n μ .) η e μ .]

/sa μ n μ η a μ /	FT BIN	TRCH	WSP	R MOST	*V ORAL N	MAX- μ -IO	MAX-IO (N)	*COD	*VNAS
(s \acute{e} μ n μ .) η e	*!							*	*
(s μ \acute{e} n μ .) η e	*!	*	*					*	*
s μ \acute{e} n μ .(η e)	*!		*					*	*
(s \acute{e} μ n μ .) η e				*				*!	*
$\overline{\square}$ (s \acute{e} μ μ .) η e				*					*
(s \acute{e} μ .) η e	*!			*		*			*
(s \acute{e} μ n μ .) η e				*	*!			*	
(s \acute{e} μ μ .) η e				*	*!		*		
(s \acute{e} μ .) η e	*!			*	*	*	*		

포르투갈어 경구개 비강자음 / η /의 비강음화에 있어서의 의무성과 음절 화 및 음보화에 있어서의 예외성을 설명하기 위해 (35)(a)-(35)(c)를 통합하는 음보형태 제약과 (37)(b) 및 (38)(a)9(38)(b)를 통합하는 비강음화 제약을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39) 제약 (38)(a)는 [+nasal] 자질이 입력형에 있을 경우에 출력형에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40) 제약 (38)(b)는 모라가 입력형에 있을 경우에 출력형에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9) FT-FRM (foot form) 표지제약

FTBIN (Foot Binariness) (McCarthy & Prince 1993, 43)(Roca & Johnson 1999, 605)

음보는 음절 분석 또는 모라 분석에서 2분지이다.

TRCH (Trochee) (Roca & Johnson 1999, 606), (Kager 1999, 172)

음보는 좌변에 머리를 가진다.

WSP (Kager 1997, 155)

중음절은 강세를 할당받는다.

(40) NAS (nasalization) 표지제약

*VORALN (Kager 1999, 28)

동일 음절의 비강음 앞에서 모음은 구강음이 아니어야 한다.

MAX-IO (N) (McCarthy & Prince 1995)

[+nasal]자질이 입력형에 있다면, 출력형에도 있어야 한다.

MAX- μ -IO (McCarthy & Prince 1995)

입력형에 있는 모라는 출력형에도 있어야 한다.

이제 포르투갈어 경구개 비강자음 /ɲ/의 비강음화에 있어서의 의무성과 음절화 및 음보화에 있어서의 예외성은 아래와 같이 설명된다.

(35)(a) rainha [Re.(ɨ.ɲe)]

/Ra _μ ɨ _μ ɲ _μ ɲa _μ /	FT-FRM	NAS	ID /a	ONS	R MOST	ID εoεo	ID /iu	*COD	*VNAS
(Rá _μ j _μ ɲ _μ .)ɲe _μ	*!	*			*				
(Rá _μ j _μ μ.)ɲe _μ	*!	**			*				
(Rá _μ ɨ _μ ɲ _μ .)ɲe _μ	*!	*			*				

$(R_{\mu}^{\acute{a}} \acute{I}_{\mu\mu})_{\mathcal{N}E_{\mu}}$	*!	*			*			
$(R_{\mu}^{\acute{e}} \acute{I}_{\mu} n_{\mu})_{\mathcal{N}E_{\mu}}$	*!				*			
$(R_{\mu}^{\acute{e}} \acute{I}_{\mu\mu})_{\mathcal{N}E_{\mu}}$	*!				*			
$R_{\mu} \cdot (i_{\mu} n_{\mu})_{\mathcal{N}E_{\mu}}$		*!		*	*			
$R_{\mu} \cdot (\acute{i}_{\mu})_{\mathcal{N}E_{\mu}}$		*!		*	*			
$R_{\mu} \cdot (f_{\mu} n_{\mu})_{\mathcal{N}E_{\mu}}$				*	*		*!	
$\square R_{\mu} \cdot (f_{\mu\mu})_{\mathcal{N}E_{\mu}}$				*	*			
$R_{\mu} \cdot (f_{\mu\mu} \mathcal{N}E_{\mu})$	*!			*				
$R_{\mu} \cdot (\acute{f}_{\mu} \mathcal{N}E_{\mu})$		*!		*				

VII. 결론

본 논문은 지금까지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거의 연구되지 않고 있는 포르투갈어 경구개 비강자음 /ɲ/의 음절화 및 음보화의 예외성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I.에서는 /ɲ/가 다른 자음들과 달리 의무적 비강음화 외에 예외적 음절화 및 음보화라는 특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 음절화, 음보화 및 비강모음 분석에 대한 4가지 이론을 전제하였다.

II.에서는 음절화 및 음보화에 있어서의 예외성이 /ɲ/에 한정되어 발생되는 것이며 따라서 그 예외성이 배타적이라는 것을 밝혔다.

III.에서는 예외적 음절화 및 음보화와 동시에 발생하는 선행 모음의 의무적 비강음화와 관련하여, /ɲ/이 가지는 비강 자음 /m, n/과의 음절두음 및 음절말음 위치에 있어서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첫째, /ɲ/이 음절말음의 위치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과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절말음인 /m, n/과 동일한 비강음화 특성을 가지며,

셋째, 음절말음인 /m, n/과 동일한 음절화 및 음보화 특성을 가진다는 것

을 밝혔다.

IV.에서는 II. 및 III.에서의 분석을 토대로, /ɲ/이 음절두음으로서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음절말음으로서도 기능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따라서 /ɲ/이 음운적 양음절성을 가진다고 설정하였다.

V.에서는 음운적으로 양음절적인 경구개 비강 자음 /ɲ/의 선행 분절음은 /n/인 것으로 공시적 및 통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VI.에서는 최적성이론을 토대로 /ɲ/의 의무적 비강음화와 예외적 음절화 및 음보화 특성을 설명하였다.

VII. 본 논문의 분석을 요약하였다.

참고문헌

- Abaurre, M. B. & E. G. Pagotto(1996), "Nasalização no Português do Brasil," in I. V. Koch (ed.) *Gramática do Português Falado VI*, Campinas: Editora da Unicamp. pp.1-16.
- Academia das Ciências de Lisboa(2001), *Dicionário da Língua Portuguesa Contemporânea*, Lisboa: Verbo.
- Almeida, A.(1971), *Die Portugiesischen Nasalvokale: Versuch einer Phonetisch-Phonologischen Untersuchung*, Marburg: Phillips-Univ.
- Cho Sung Shik(편.)(1990), *Dictionary of English Linguistics*, Seoul: Shinasa.
- Durand, J.(1990), *Generative and Non-Linear Phonology*, New York: Longman.
- Head(1965) *A comparison of the segmental phonology of Lisbon and Rio de Janeiro*,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u Austin.
- Hyeon, Ki Hong(2006), *A Study on Portuguese Main Stress -In View of Syllable Weight, Frequency and Optimality Theory*, Ph. 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Hyeon, Ki Hong(2012), "Portuguese Nasal Vowel,"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Iberoamérica)*, Vol.14, No.1, pp.241-281.

Hyeon, Ki Hong(2014), "Portuguese Nasal Diphthong,"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Iberoamérica)*, Vol.16, No.2, pp.65-109.

Kager, R.(1999), *Optimality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Kahn, D.(1976), *Syllable-Based Generalizations in English Phonology*, Doctoral dissertation, MIT.

Mateus, M. H. M.(1975), *Aspectos da Fonologia Portuguesa*, Lisboa: Centro de Estudos Folológicos. (2ª edição, Textos de Linguística 6, Instituto Nacional de Investigação Científica, 1982)

McCarthy, J. J. and A. Prince(1993), *Prosodic Morphology I: Constraint Interaction and Satisfaction*, M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and Rutgers University, New Brunswick, N.J. *ROA* Version (2001).

_____ (1995), Faithfulness and reduplicative identity, in Jill Beckman, Laura Walsh Dickey & Suzanne Urbanczyk (eds.), *Papers in Optimality Theory*, University of Massachusetts Occasional Papers 18, Amherst, Mass: Graduate Linguistic Student Association. pp. 249 - 384.

Myers, S.(1987), "Vowel Shortening in English," *Natural Languages and Linguistic Theory* 5, pp.485-518.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1996), (II) *Translation of the Linguistic Terminology*, Seoul: Gye-Mun-Sa.

Reed, D. W. & Y. Leite(1947), "The Segmental Phonemes in Brazilian Portuguese: Standard Paulista Dialect," in K. L. Pike (ed.), *Phonemics: A Technique for Reducing Languages to Writing*,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pp.190-202.

Roca, I. & W. Johnson(1999), *A Course in Phonology*, Oxford: Blackwell.

Teyssier, P.(1982), *História da Língua Portuguesa* (Tradução de Celso Cunha),
Lisboa: Sá da Costa.

Trager, G. & Bloch, B.(1941), "The Syllabic Phonemes of English," *Language* 17,
pp.223-246.

Wetzels, W. L.(1997), "The Lexical Representation of Nasality in Brazilian
Portuguese," *Probus* 9, pp.203-232.

_____.(2000), Consoantes Palatais como Geminadas Fonológicas no
Português Brasileiro, *Revista de Estudos da Linguagem. Belo Horizonte*,
Vol.9, No.2, pp.5-15.

<국문요약>

본 논문은 지금까지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거의 연구되지 않고 있는 포르투갈어 경구개 비강자음 /ɲ/의 음절화 및 음보화의 예외성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먼저, /ɲ/가 다른 자음들과 달리 의무적 비강음화 외에 예외적 음절화 및 음보화라는 특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 음절화, 음보화 및 비강모음 분석에 대한 4가지 이론을 전제하였다. 이어서, 음절화 및 음보화에 있어서의 예외성이 /ɲ/에 한정되어 발생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예외성이 배타적이라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예외적 음절화 및 음보화와 동시에 발생하는 선행 모음의 의무적 비강음화와 관련하여, /ɲ/이 가지는 비강 자음 /m, n/과의 음절두음 및 음절말음 위치에 있어서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첫째, /ɲ/이 음절말음의 위치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과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절말음인 /m, n/과 동일한 비강음화 특성을 가지며, 셋째, 음절말음인 /m, n/과 동일한 음절화 및 음보화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밝혔다.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ɲ/이 음절두음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음절말음으로서도 기능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따라서 /ɲ/이 음운적 양음절성을 가진다고 설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음운적으로 양음절적인 경구개 비강 자음 /ɲ/의 선행 분절음은 /n/인 것으로 공식적 및 통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최적성 이론을 토대로 /ɲ/의 의무적 비강음화와 예외적 음절화 및 음보화 특성을 설명하였다.

주제어: 경구개 비강자음 포르투갈어, 최적성 이론, 의무성, 비강음화 예외성, 음절화, 음보화

|| 논문투고일자: 2016년 10월 25일

|| 심사완료일자: 2016년 12월 06일

|| 게재확정일자: 2016년 12월 07일